

데스크 시각



최재호 사회부장

“시간이 해결해 준다!” 사별(死別)이나 실연 등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당했을 때 흔히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한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망각(忘却), 즉 잊어 버림을 뜻한다. 그래서인지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로 미화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레테(Lethe)는 망각의 강, 또는 망각의 여신을 가리킨다. 누구라도 그 강물을 마시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기억을 잊어 버리게 된다고 한다. 레테라는 이름은 ‘망각, 기억의 상실’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됐다.

사람들은 속 속에서 종종 잊어 버리고 싶을 만큼의 아픔과 슬픈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면 그 아픔에 함몰돼 자살하거나

망각(忘却) 아닌 각성(覺醒)이 필요하다

미치광이가 될지도 모른다. 망각의 긍정적 기능이다.

하지만 망각이 이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나 국가가 집단적으로 망각에 빠졌을 때 그 조직이나 국가 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5월 초엔 영암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여아 4명이 성추행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호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호사랑병원) 참사가 이어졌다.

사고 발생 57일이 지나도록 마지막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지난 1993년 292명이 숨진 서해 훼리호 침몰을 망각한 결과다. 서해 훼리호 사고 이후에도 한강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방화 등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들끓고 분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난무하

지만 참사의 기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기 전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10명이 죽고 128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백주 대낮에 300여 명의 생명이 수장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안전점검이 잠깐 사회적 화두가 되기도 했지만 그 역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망각의 늪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굶고 굶아 치유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이라는 고품이 터져 버린 듯했다.

선거, 망각의 또다른 폐해

대한민국이 겪는 망각의 폐해는 사건·사고에만 있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인 선거마저 망각의 폐해로 몸살을 앓는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광바닥에 엎드려 절거야 한다. 유권자들의 비위만 맞추며 시류에 편승한 공약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몇 년 뒤 후보자들이 내걸었던 공약은 공허한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심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광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면까지 몸을 낮췄던 당선자들은 당선된 순간부터 주인이 돼 국민을 부려 먹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다시 망각하고 다음 선거에서 이를 심판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충일에 해당되는 메모리얼데이인 지난 5월 26일.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이 7이닝 퍼펙트 피칭으로 5승을 거뒀다.

이날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으니 류현진을 비롯한 LA 다저스 선수단과 신시내티 선수단 모두 미 해병대의 위장부대가 새겨진 복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군인들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말리터로 록 복장을 하고 경기에 임한 것이다. 과거를 통해 반성과 교훈을 얻어 있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영암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장성 요양병원 참사 그리고 투표일만 지나면 잊어 버리는 선거... 이제 더 이상 망각하지 않고 각성(覺醒)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또다시 길고 긴 망각의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과제다.

/lion@kwangju.co.kr

은편칼럼



최영태 전남대 교수·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6·4지방선거 결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외형적으로는 무승부를 기록한 듯 보인다. 그러나 선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고, 세월호 정국의 한 복판에서 치러지는 등 민주개혁진영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적표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 것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 13개 지역에서 진보 개혁적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이게 바로 선거 당시 국민의 일반 정서였다. 한 마디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압승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광역시 선거에 당락을 집중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빗대어 당이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않고 대선 집중하

선거 이후 광주...기대와 우려

지 않아도 될 곳에 집중한 비정상적인 선거를 치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평가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당선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이요 광주시민 모두에게 값비싼 대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가 여전히 애매모호한 것처럼 윤장현 당선자의 ‘새 정치, 새 인물’이라는 구호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믿고 막연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윤장현 당선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시민들의 이런 특별한 선택에 부응해야 한다. 전략공천 논쟁으로 인해 정책선거가 실종되어버린 이번 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광주발전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호남당 탈피론을 펼치곤 했던 지난날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인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개혁진영의 성장을 위해 지역정치를 희생시켰다. 지난 대선 직후 그리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호남인들 다수는 호남이 더 이상 중앙정치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표출했지만 선거

결과와 역시 과거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광주시의회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100%가 새정치민주연합 쪽 사람들이다. 지역구에서 통합진보당 출신 의원 1명을 당선시켰던 4년 전보다 더 후퇴한 모습이다. 구청장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쪽 사람들인데, 구의회까지도 새정치민주연합 출신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구의원 후보들 중에는 동네에서 주민운동을 전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섰고, 그래서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해 좋은 구의원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대부분 낙선했다. 대부분의 선거구가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는데도 말이다. 기초 자치단위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민들은 이번 선거 때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모르겠다. 의회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이런 도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이런 광주를 가리켜 과연 ‘민주화의 성지’이며 전략적 선택에 타당한 도시라고 계속 부를 수 있을까?광주가 진정한 민주화의 모범 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지려면 일상적 삶속에서

의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민주개혁진영이 전략공천 논쟁으로 인해 유례없는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이점을 직시하며 지역사회의 통합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장현 당선자 주변에는 다행히 참신하고 정직한 조언자들이 많다. 그렇더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변화라는 키워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임 시장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잘못은 보완 시정하는 ‘계승과 변화’의 균형 잡힌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또 하나 ‘변화와 새정치, 새 인물론’은 이번 시장 선거 한번으로 끝맺음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2년 후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새로운 인물 찾기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략공천의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며, 광주를 비롯하여 호남이 다음 대선에서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거점지역이 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과유불급 자식사랑



전상훈 광주 첨단교 교장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가장 몸살 속담 하나를 고르라면 ‘자식 이겨먹는 부모 없다’일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성상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론적 분석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 중의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속담이 나왔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자식의 예쁘고 귀한 짓에 흠린 나머지 분별없는 사랑의 함정에 빠져 ‘오냐 오냐’ 식으로 키우다가 결국엔 그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물론 가정의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주변에 허다한 것을 보면 제대로 된 부모노릇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게 된다.

맹자(孟子)의 제자 공손추(公孫丑)가 ‘군자가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아

야 하는 이유’를 묻자 맹자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택하고 꾸짖으면 자식은 마음속으로 ‘부모님은 나에게 선택하고 꾸짖지만 결해서 지켜보면 부모님도 평소와 행실이 언제나 바뀐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음의 괴리가 생기게 되면 이보다 나쁜 짓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을 바 꾸어서 가르쳤던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역자교지(易子教之)의 불가피함을 설파한 맹자의 이 가르침 속에는 자기자식을 손수 가르쳐도 될 만큼의 충분한 본(本)이 되어 살지 못하는 우리 같은 범인(凡人)들의 인간적 한계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 교육을 나 몰라라 방관한 채 무조건 남에게 맡겨야 한다거나 자녀를 제대로 길러야하는 부모 본연의 책임을 게을리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애정이 여기는 마음이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지만 옛 사람들은 자식 교육의 어려움만큼이나 그 중요성을 알았기에 나름의 지혜를 발휘하였다. 엄부자모(嚴父慈母)의 교육방식

이 그것인데,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었기에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사리 분별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가정의 부모들은 그런 교육방식을 그저 낡고 고루한 것, 신세대 아이들에겐 맞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고 만다.

자식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저지르거나 사회적 규율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무조건 너싸주려고만 하는 부모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으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인격은 독선과 이기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남과 더불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잦은 충돌을 빚을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적 부적응이나 일탈을 일삼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비뚤어진 부모 사랑, 가정교육 실종의 문제점을 학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주고 치유해주면 좋으련만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빈발하고 정서행동에 심각한 불안요

인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애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만큼 자라나는 말 또한 배반 받는 말이다. 하지만 이 당연한 자식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자식을 망치는 독약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과잉보호는 자녀를 인격적 미숙으로 만들뿐더러 비뚤어진 인성과 도덕성의 결여가 개인적 불행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적 해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애정 어린 꾸지람을 듣고 자라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를 감사히 맞을 수 있었던 옛날이 문득문득 그리워지는 것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사랑은 ‘과유불급’이라 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기저서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의 고마움을 얘기하곤 하는데 ‘미운 자식 떠 대다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대다 더 때린다.’했던 옛 선인들의 올바른 자녀교육 지혜를 곱씹으며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들 우리 모두 깊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社 說

자치단체장 인수위 ‘점령군’ 행세 안 된다

민선 6기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가 9일부터 일제히 활동에 들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직 단체장의 정책과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인계 받아 행정의 단절을 없애고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내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인수위원회는 송인성 전남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25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회에는 윤장현 당선자가 시민운동가 출신인 점을 반영 하듯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교수 11명, 시민사회단체 8명, 정치인 3명, 노조활동가 2명, 행정가 1명 등이다.

인수위는 광주의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희망 광주 준비위원회’로 명명됐다. 윤 당선자는 ‘소통하고 토론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남지사 인수위원회는 허삼만 전남림부 장관을 위원장에 위촉했고, 교

수 등 학계 18명, 관련 분야 종사자 7명, 전직 공무원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등으로 짜였다. 이낙연 당선자는 “철저히 일하는 기구로 구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무형 전문가 그룹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광주·전남도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조직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기조를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광주시장 당선자 측 일부 관계자들이 인수위 구성 전부터 공무원들에게 출차 및 출연 기관 현황 등 갖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발췌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과거 당선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나 인수위원들이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물의를 빚었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인수위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과 공직자들 길들이는 기위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막으려면 당선자들도 내부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을의 눈물’ 짜내는 현대차의 글로벌리스

현대차그룹 소속으로 물류 수송 전담 회사인 현대글로벌리스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상용차 운송 하청 업체를 상대로 ‘갑(甲)의 횡포’를 부러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수천만 원을 들이 트레일러를 교체하도록 해놓고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해 ‘을의 눈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글로벌리스는 최근 100여 화물차주들에게 광주~목포항 구간 운송료를 6대 상차 기준으로 기존 28만5000원에서 오는 7월부터 4만7600원 낮춘 23만7400원을 지급하기로 통보했다고 한다. 운송료 인하는 결과적으로 차량 1대를 ‘공짜’로 탁송해달라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경우 하루 3차례 왕복으로 볼 때 한 달 평균 300만 원에 달하는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차주들은 애초 상용차 5대를 신도록 돼 있는 트레일러를 회사의 증용으로 6대를 추가하기 위해 3년 전부터 7000만 원 이상의 자부담을 들여 트레일러까지 교체했

지만 오히려 운송료를 삭감해 피해만 입게 됐다든 하소연이다. 차주들은 그렇지 만 현대글로벌리스라는 거대한 갑 앞에서 일감을 빼앗길까 속만 태우고 있다.

현대글로벌리스의 이러한 횡포는 우리 사회의 대세인 경제민주화에 정면 역행하는 행태이자 모기업인 현대·기아차의 ‘글로벌리스’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8년 전 대대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하는 것은 상생프로젝트가 한마디로 대외 선전용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모기업의 성장도 불가능하다. 많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윈-윈 경영’에 심혈을 쏟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7세기 초, 한반도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즉위하면서 신라는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 시기 신라의 국의 정세는 ‘백척간두’라 할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삼국 중 영토가 작고 국력이 약했던 신라는 남하정책을 펴는 고구려와 중흥의 기운이 뻗치는 백제 사이에 끼여 고통받고 있었다. 이때 선덕여왕은 과감한 인재동용을 통해 난국을 타파한다.

선덕여왕이 선택한 첫 번째 인재, 김춘추는 정적의 아들이다.

김춘추는 마지막 성골(眞骨)인 선덕여왕에 올르기 전, 그녀와 왕위

선덕여왕

를 두고 경쟁을 벌였던 진골(眞骨) 계급의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 김용춘의 아들이다. 귀족 대표들의 모임인 화백회의의 결정에 따라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대신이고 전면에 관한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김춘추가 단 한 번 왕권에 도전하지 않고 충실한 신하로서 성실히 복무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녀의 탁월한 인재동용술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김유신이다. 김유신은 신라에 멸망당한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이다. 그는 가야가 멸망하면서

신라의 진골계급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배타적인 신라 귀족사회에서 차별받는 이방인이었다. 선덕여왕은 그런 김유신을 발탁, 군사권을 맡겼다. 망국의 귀족에게 군사권을 주는 것은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파격적인 인사일 수 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김유신을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멸망시킨 왕국의 왕족을 가장 충직하고 유능한 신하로 삼을 수 있었다.

물론 선덕여왕이 두 김씨를 수하로 추는 정적의 아들이다.

삼아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당 태종이 보낸

모란꽃의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꽃의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의 ‘영민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화백회의가 새로운 왕으로 선덕여왕을 지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천부적인 카리스마’도 한 몫 했음은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과 참모진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론이 분열된 지금은 대량평 인사에 필요한 시점이다. 스스로 선덕여왕의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그 리더십도 눈여겨보았으면 한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